



###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⑩ (끝)

이제 성불하는 장면을 살펴 볼 순서이다. 선재동자가 마침내 보현보살에게 찾아가 법계와 하나가 되는 장면을 대혜스님의 서간문은 이렇게 표현한다. “보현보살의 모공(毛孔)에 들어간 한 털구멍에 한 걸음씩 나아가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지나 보현보살과 같이 되고 부처님과 같이 되며 세상과 같이 하고 행리가 같이 하고 해탈과 재해함도 모두 같이 해서 다름이 없나니, 이렇게 되면... 6식이 6신통이 되며 번뇌가 보리가 되고 무명이 큰 지혜가 될 것이니 이것은 수행하는 사람의 마지막 한 생각까지 진실한 까닭이 아니라(在當人末後一念眞實而已).”

선재가 이 때에 비로소 한량 없는 큰 지혜의 광명을 갖추어 성불한(位滿齊佛) 것이다. 경문

## 마음 깨끗하면 온세계 부처

화엄의 장광설 - 부처님 공덕의 일부

을 보자. “이 때를 당하여 선재동자는 차례로 보현보살의 행과 원의 바다를 밟아서 보현보살과 평등하고 부처님들과 평등하며, 한 몸이 모든 세계에 가득하여 세계가 평등하고 행이 평등하고 바르게 깨달음이 평등하고 신통이 평등하고 법문이 평등하고 변화가 평등하고 말씀이 평등하고 음성도 평등하고 힘과 두려움 없음이 평등하고 부처님의 머무심이 평등하고 대자대비가 평등하고, 부사의한 해탈과 재해함이 모두 평등하였다.”

이런 법문을 명심하면서, 신심(信心)의 중요성에 대하여 계승으로 다시 한 번 음미해 보자. “어떤 이는 가는 데마다 부처님께서 온 세계에 가득함을 보옵지마는 어떤 이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 무량겁에도 부처님을 보지 못하며 / 어떤 이는 믿고 알지만 교만이 없어 생각대로 아래를 보옵지마는 어떤 이는 아첨하고 마음이 부정하며 역겹듯만 찾아도 만나지 못해.”

그리고는 성불한 후 보살행을 뒤는 장면을 계승으로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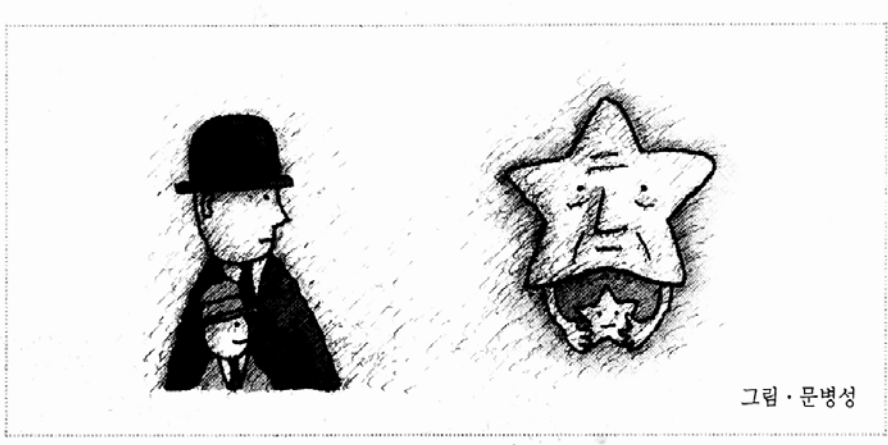
마도 일불승의 법은 자수용(自受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를 증상을 위해 회향하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고 부처님들과 평등하며, 한 몸이 모든 세계에 가득하여 세계가 평등하고 행이 평등하고 바르게 깨달음이 평등하고 신통이 평등하고 법문이 평등하고 변화가 평등하고 말씀이 평등하고 음성도 평등하고 힘과 두려움 없음이 평등하고 부처님의 머무심이 평등하고 대자대비가 평등하고, 부사의한 해탈과 재해함이 모두 평등하였다.”

이제 입법계품을 총결하는 ‘끝없는 공덕을 찬탄하는 계승(無盡功德頌)’을 보자. 80권 화엄경의 종합결론이라 해도 좋을리다.

“세계 티끌 같은 마음 헤아려 알고 큰 바다 물이라도 마셔 다 하고 허공을 측량하고 바람을 얻어매도 부처님의 공덕은 말로 다할 수 없네(剎塵心念可數知 大海中水可飲盡 虛空可量風可繫 無能盡說佛功德) / 이러한 공덕 바다 누가 듣고서 기뻐하며 믿는 마음 내는 이들은 위에 말한 공덕을 얻게 되리니 여기에서 의심을 내지 말아라(勿於此懷疑).”

실컷 장광설(長廣舌)로 화엄을 설하고는 이처럼 조금 밖에 설하지 못했다는 것이 불법의 세계이리라. 이런 설주의 겸손함이 불교다운 포용력이 아닐까!

■불교사상·논리학연구소 연구원



그림·문병성

##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 별의 세대순환

만물은 태어나 사라지고 또 태어나는 생주이멸을 이어간다. 그렇다면 별의 세계는 어떨까?

별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의 종류가 바뀌거나 에너지 전달과정이 불안정해지면 물질을 밖으로 방출함으로써 안정을 찾아가고, 물질 방출은 별이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심해지고 쇠퇴기에 들게 되면 더욱 극심해진다. 이렇게 방출된 물질은 초속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흩어지면서 별들 사이를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여러 별들에서 나와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방출물질이 서로 모여 성간물질층을 이룬다.

인간은 부모 밑에서 자식이 생겨 부모의 핏줄을 이어가지만 별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즉 한 별에서 방출된 물질이 다시 모여 다음 세대의 별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별에서 나온 물질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서 모여 새로운 별을 탄생시킨다. 당연히 특정한 조상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위 세대와 아래 세대는 세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폭발 우주론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50억년 전에 우주가 탄생되어 3억년이 지난 후 원시 은하물질에서 첫번째 세대의 별들이 형성되었다. 질량이 다른 여러 별들 중에서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무거운 별들은 수백만년 내지 수천만년의 짧은 기간만 살다가 지만 일생을 마치며 많은 물질을 방출한다. 이렇게 무거운 별들에서 흩뿌려진 물질이 모여서 두번째 세대의 별들을 탄생시킨다. 첫번째 세대의 별들은 초기 원시 은하물질이 차지한 공간 전체에 걸쳐 회전하며 돌아다닌다. 그러나 원시 은하가 수축하면서 점차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물질은 점차 은하회전축에 수직인 원반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따라서 두 번째 세대의 별들은 첫 번째 세대의 조상 별들보다 원반 쪽으로 모여들어 운동공간이 좁아지게 된다. 두번째 세대의 별들 중에서 질량이 큰 별들은 빨리 생을 마치고 많은 물질을 방출하고 이로부터 세번째 세대의 별들이 탄생되고, 이들의 공간 운동은 더욱 더 원반 쪽으로 집중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은하계 내에는 5종류 세대의 별

### 5세대가 공존하는 은하계 인간처럼 가족 집적않고 인연따라 세대 순환

들이 함께 살고 있다. 태양은 4번째 세대의 별에 해당하며 밤하늘에서 푸르게 보이는 별들은 태양보다 한 세대 낮은 5번째 세대의 젊은 별들이다. 태양보다 윗세대 별들은 나이가 100억년 이상이고 또 태양보다 질량이 적다.

인간은 세대를 거치면서 관습이 전수되고 또 지식과 지혜가 쌓이면서 삶의 질이 바뀌어진다. 그러나 한 가족이 지니는 생물학적 유전 특성은 계속 이어진다. 별의 경우는 어떠한가? 첫번째 세대의 별이 핵반응을 통해 헬륨보다 더 무거운 중원소를 만들어 내고, 이것이 함유된 물질을 밖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별을 이루는 물질성분에는 앞선 세대의 별보다 더 많은 중원소를 포함하게 된다. 세대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중원소 함량은 더욱 증가한다.

의상 대사의 범성계에서 “한 개의 티끌 중에 우주가 포함되니 일체의 티끌 중에서도 그와 같다(一微塵中舍十方一體塵中亦如是)”라고 했다. 첫번째 세대의 티끌과 5번째 세대의 티끌은 같은 것이 아니라 구성성분에 큰 차이가 있다. 즉 세대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티끌 속에 들어 있는 중원소의 함량이 점차 많아진다. 이처럼 한 개의 티끌 속에도 긴 우주의 역사를 간직한 우주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다.

인간은 태양처럼 4번째 세대의 물질에서 생겨났기에 윗 세대들의 정보가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적 정보는 유식종의 8식 중에서 아뢰야식인 종자식으로 우리 몸 속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일부는 칼 융의 집단무의식으로 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철학자 프롬은 무의식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무의식이란 우주에 근원을 둔 보편적 인간 즉 전인(全人)을 의미한다. 무의식은 자기 속에 있는 식물, 동물, 자기자신을 나타낸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여명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과거를 표현하고 있으며, 또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 되는 그의 미래를 나타내며, 또한 인간이 자연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이 인간화되는 그날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유의적(有意的) 행위(행위)나 사고가 따르지 않은 원초적 본성이 무의식으로써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 등의 특성에 제약받지 않은 우주의 종자의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심한 제도적 여과작용에 의해 무의식의 잠재력과 활동이 억제되면서 소위 기계화된 인간으로 전락되고 있다. 불법은 인위적인 어떠한 여과도 거치지 않은 무위적 자연질서를 나타내는 아뢰야식에 따라 자연과 합일하는 것이 올바른 세대의 순환임을 보여준다.

■이시우/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 “인도인 백만 불교개종 자유 향한 인류 대사건”

4일 행사 앞두고 람라즈 회견서 밝혀

인도에서 불교부흥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람라즈(Ram Raj)가 11월 4일 인도 델리의 람라즈 그라운드에서 마련한 ‘1백만인 불교개종’ 행사를 앞두고 인도 트리뷴(The Tribune) 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로드부다클럽(Lord Buddha Club)의 창립자인 람라즈는 “이번 행사는 인류사의 대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 지구촌 불교

◆불가촉천민이 불교로 개종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개종(Conversion)이 아닙니다. 부흥(Renaissance)이라고 해야 합니다. 불가촉천민은 카스트 제도에도 포함되지 못한 천민 중의 천민입니다. 저는 그들이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11월 4일 개종행사는 인도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을 찾고자 하는 굳건한 행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불가촉천민이 불교에 귀하는 것은, 불교가 인도 고유의 종교이자 그들의 선조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평등한 삶을 누린 데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극소수의 불가촉천민들이 개종해 왔습니다. 1백만이라는 숫자에 담긴 뜻은.

“인도 나아가 인류사의 대사건”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불가촉천민의 문제를 불교 안에서 해결하려는 암베드카르의 첫 시도 이후 불가촉천민의 불교 귀하는 소수이지만 계속됐습니다. 또한 불가촉천민이 인도의 가장 잘못된 관습인 카스트 제도를 버리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1월 4일 개종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불가촉천민도 신분 제도도 겪은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불가촉천민의 대 사회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에 대해 인도 내부에서 우려도 있는데.

“일부 인도들은 불가촉천민이 인도의 사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적인 진보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가촉천민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부를 함께 저축하고 또 함께 나누는 일에 참여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번 개종 행사 역시, 불가촉천민이 인도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평화수호운동의 일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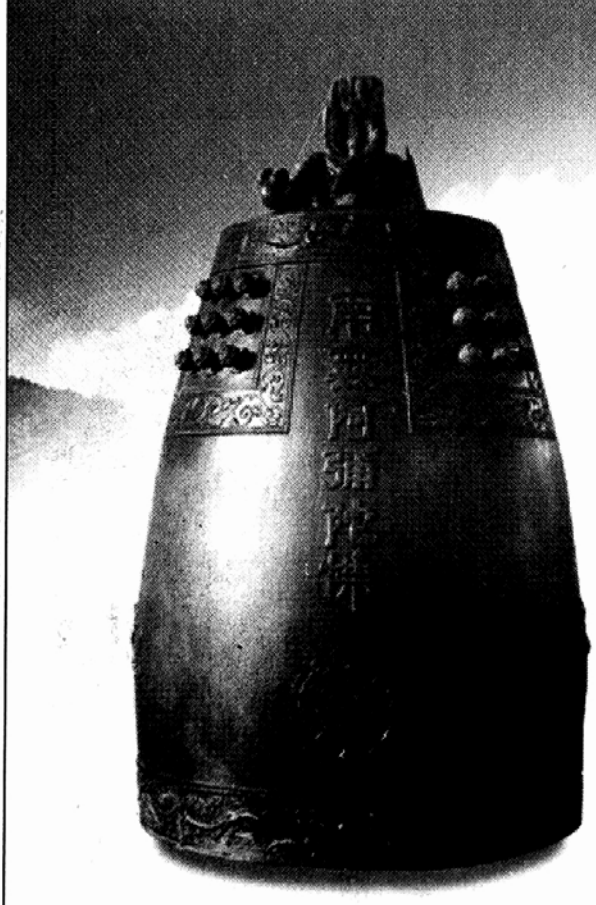
◆불가촉천민은 개종을 하더라도 인도에서는 여전히 불가촉천민일 뿐입니다. 개종이 어떤 힘을 갖기 보다는 상징성만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인도의 주류 문화가 무엇인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현재 인도의 주류 문화는 힌두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불교에 귀하는 것은 현 사회 체제에 도전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불가촉천민은, 불교가 인도의 주류 문화로 자리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스트 제도도 사라질 것입니다. 불교의 본질을 잃지 않는 창조적인 부흥운동을 통해 불교발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11월 4일 불교에 귀하는 불가촉천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이번 행사를 통해 불가촉천민이 의식적 자각을 얻고,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인도의 발전에 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2억 5천만명의 불가촉천민이 있는 불평등의 땅입니다. ‘달기만 해도 더러워진다’는 불가촉천민이지만, 모두 ‘신의 아들’입니다. 1백만 불가촉천민의 개종 행사란 커다란 변화는 이를 개선하는 데 적잖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종욱 기자 goboo@buddhapa.com



중량 3,300관

## 가야산 범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0